

모즈 고분군

동아시아를 향한 대왕의 위신



모즈 고분군은 사카이 시내를 동서, 남북으로 약 4km 범위에 걸친 고분군입니다.

고분 시대에 이 일대에는 100기 넘는 고분이 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으로 그 절반이 유실되었고 현재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걸쳐 축조된 47기의 고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분묘 닌토쿠천황릉 고분을 비롯한 거대한 전방후원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의 고분 문화를 전하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또한, 모즈 고분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한 토우 외에도 금동제 장신구, 철제 마구와 무기와 같은 부장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들 출토품에는 한 반도와 중국의 영향이 보이며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급의 권력 상징 닌토쿠천황릉 고분



분구의 길이가 486m로 세계 최대의 전방후원분입니다.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에는 양쪽으로 돌출부(쓰쿠리다시)가 있으며 3중으로 된 해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5세기 중엽에 축조된 고분으로 주위에는 배총으로 보이는 10기 이상의 고분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석관과 갑옷, 투구 등이 발견되었고 그때 그려진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닌토쿠천황릉 고분의 모습

옛날 고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현재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구의 후원부 정상에는 커다란 돌이 보이며 분구는 2중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일까요?



닌토쿠천황릉 고분 그림(교호 연간(享保年間))
(사카이시립 중앙도서관 소장)

문화재 보존의 상징 이타스케 고분

닌토쿠천황릉 고분의 남동쪽에 있는 분구의 길이 146m인 전방후원분입니다. 주위에는 배총으로 보이는 고분 몇 기가 있습니다. 5세기 중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55년에는 개발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했으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보존운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1956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고분에서 출토한 투구형의 토우는 사카이시 문화재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타스케 고분 출토 투구형 토우



다이센공원 안에 남아 있는 풍요한 자연 구와쇼보 고분

분구의 길이가 61m인 원분으로 그 주위를 해자가 둘러싸는 독립적인 고분입니다.

2008년도 조사로 토우와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분구 위의 숲은 식생 관촬림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치카야마 고분 출토 금동제 띠 금 장신구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후루이치 고분군

면면히 흐르는 대왕의 계보



후루이치 고분군은 오사카부의 동남부 후지이데라시에서 하비키노시에 걸쳐 동서남북으로 각 4km 범위에 펼쳐진 고분군입니다.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에 형성된 이 거대한 고분군은 분구 길이 4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오진천황릉 고분에서 한 변이 10m도 안 되는 소형 고분까지 120기를 넘는 다양한 모양과 규모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44기 가운데 분구 길이 2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7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분에 매장된 부장품에는 철제 무기와 무구가 두드러집니다. 그 중에는 1기 고분에서 200자루를 넘는 칼과 검이 출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금을 사용한 화려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곤다마루야마고분에서 출토한 금도금된 금동제 말안장 금구(국보)가 대표적입니다.

우뚝 솟은 대왕 묘 오진천황릉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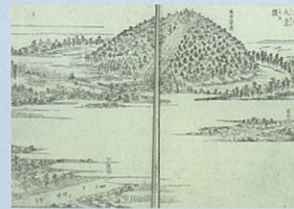


분구 길이가 425m로 사카이의 닌토쿠천황릉 고분에 이은 전국 제2의 규모입니다. 고분의 성토나 체적으로는 전국 제일가는 거대 고분입니다. 분구는 삼단축성이며 잘록한 부분 양쪽으로 돌출부(쓰쿠리다시)가 있으며 해자와 독이 2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구와 안쪽, 바깥쪽의 독의 경사면에는 후키이시(=즙석)를 깔았으며 커다란 원통 토우가 2만 개 이상이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토우의 특징으로 보아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도시대 관광지도

에도시대에는 '가와치 명소 도회'라고 하여 지금의 관광지도와 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진천황릉 고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분 위에는 오진천황을 모시는 육각당이 있으며 그곳에 이르는 벚꽃나무 길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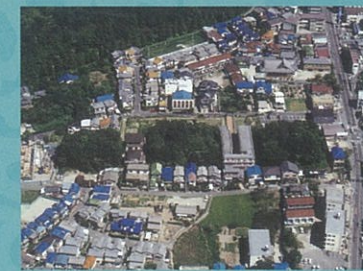
'가와치 명소 도회'의 오진천황릉 고분의 공(宮)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신사와 공원 쓰도시로야마 고분

하비키노 구릉의 최북단에 있으며 고분군 중에서도 최초로 축조된 대형 전방후원분으로 분구 길이는 208m입니다. 분구의 주위는 2중으로 된 해자와 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1983년 발굴 조사에서 물새모양의 토우 3기가 나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작은 산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봄에는 벚꽃이나 유채꽃이 피는 공원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쓰도시로야마 고분 출토 물새형 토우 (중요문화재)



고분의 축조기술 해명 미쓰즈카 고분

나카쓰히메황후릉 고분의 남쪽에 3기가 동서로 나란히 있는 방분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야시마즈카 고분, 나카야마즈카 고분, 스케타야마 고분으로 불립니다. 야시마즈카 고분과 나카야마즈카 고분은 모두 분구의 한 변이 50m이고, 스케타야마 고분은 한 변이 36m인 방분입니다. 3개 고분은 거의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시마즈카 고분과 나카야마즈카 고분 사이에 있는 해자 발굴 조사에서는 크고 작은 목제 수라가 2개 발견되었습니다.



수라(중요문화재)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운반하는 썰매 같은 도구